12. 의로움과 이익의 분별

열두 번째는 의리를 지킴이니, 배우는 자는 무엇보다도 의로움과 이익을 밝게 분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의로움이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 이익을 위하는 도둑의 무리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선을 행하면서 명예를 구하는 자 또한 이익을 위하는 마음이니 군자는 그것을 담장을 넘고 벽을 뚫는 도둑보다 더 심하게 본다. 하물며 불선을 행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자이랴.

배우는 자는 털끝만큼의 이욕도 마음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 옛사람은 부모를 위한 노역이라면 품팔이나 쌀을 짊어지기도 하였지만 그 마음은 항상 깨끗하여 이욕에 물드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날의 선비는 온종일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이욕을 버리지 못하니 슬프지 않겠는가. 혹시 가정이 가난하여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한번 계획해 보지 않을 수 없으나 이득을 구하는 생각은 싹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리치거나 받거나 가지거나 주거나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그것이 당연한가 아닌가를 살피고,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해야 하고 털끝만큼도 구차스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해설

공자 사상은 누차 말했듯이 인(仁) 한 글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철학입니다. 백년 후에 태어난 맹자는 인에 의로움을 합쳐 인의(仁義)를 학설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상보적 특성을 잘 설명했습니다.

공자가 인과 의로움을 맹자처럼 병렬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의로움을 말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훌륭하게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공자가 "인한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논어』 14:5)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의를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논어』 2:24) 이 두 말을 연결하면 공자가 인을 의로움과 연결하여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뜻 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치지 않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논어』 15:8) 뜻 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국어사전의 해석을 보면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로움은 무슨 뜻일까요? 사회통념상 옳은 일, 또는 인간으로서 정도를 걷는 일입니다. 사회통념상 옳은 일이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의로움이 객관적 측면이라면, 의롭다는 주체의 실천적 측면을 위주로 한 말입니다.

맹자는 의로움을 이익과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의로움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익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용어를 차용하면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의 대비입니다.

맹자가 패도와 왕도를 대비하면서 패도는 '인의를 행하는 것'이고 왕도는 '인의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의를 행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인의를 행하는 것이어서 패도입니다. '인의대로 하는 것'은 인의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어서 왕도입니다. 패도는 이익과 왕도는 의로움과 대응합니다.

현실에서는 엄격하게 구별할 수 없지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또는 세상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맹자는 정신적인 것 성스러운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유학의 기본 정신입니다.

맹자가 의로움을 높이고 이익을 낮추는 태도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수긍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자가 현실에서 의로움만을 추구하고 이익을 무시했다는 추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불가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유학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맹자는 이익, 곧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행위의 결과로서 얻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익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도리어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행위야 말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논어』의 제1편은 '학이'입니다. 배우고 익힌다는 말에서 따온 편명입니다. 배움을 중시하는 공자의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맹자』 전체 7편의 첫 장을 '하필왈리장'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양혜왕에게 '하필이면 이익을 말합니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의로움을 앞세우는 맹자의 정신이 드러납니다.

'하필왈리장'은 『맹자』 제1편 '양혜왕상'의 제일 처음 장입니다. 『맹자』에 자주 등장하는 제선왕, 등문공 등은 제나라의 선왕, 등나라의 문공이라는 말입니다. 양혜왕은 양나라의 혜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은 대량으로 위나라의 수도입니다. 혜왕이 대량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양혜왕이라고 합니다. 굳이 하자면 위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혜왕이 맹자를 만나자 대뜸 선생께서 천리 길을 멀다 아니하고 본국을 방문하셨으니 나라에 이익이 될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말문을 틉니다.

맹자가 '왕은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애와 의로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왕이 이익을 원하면 대부도 나에게 이익이 될

까 생각하게 되고 하급관리나 서민들도 나에게 이익이 뭐지 하여 상하가 모두 이익을 취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애초에 왕이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도리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반론입니다.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 나라를 이롭게 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맹자』 1:1)

맹자가 인의와 이익을 대비하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의는 백성을 인애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고, 이익은 양혜왕이 생각하는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양혜왕이 나라의 이익을 바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니,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이익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맹자는 백성을 인애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이익이라는 입장입니다. 양혜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부를 증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영토를 확장하는 것들은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뿌리가 튼실하면 가지는 자연스레 무성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대학』에서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라고 합니다. 맹자와 같은 생각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다보면 서로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다

스려지는 근본이 훼손됩니다. 결국 나라는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재물이 흩어지면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대학』 11:9)

덕을 실천하면 재물은 자연스레 모이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백성들의 재화가 왕의 재화가 되는 원리입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인을 좋아하는데 아래에서 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를 좋게 여기고 그 일이 마무리 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창고의 재물이 그의 재물이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대학』 11:21)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민본정치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는 바가 사랑과 정의의 기준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백성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의 정치는 백성이 바르게 여기는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대학』에 맹헌자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마승 20을 기르는 사람은 닭과 돼지를 살피지 않고, 얼음을 치는 집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으며, 백승의 집은 취렴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습니다. 취렴하는 신하를 기를진댄 차라리 도둑질 하는 신하를 둔다 하였습니다. 나라는 이익을 이로움으로 삼지 않고 의를 이로움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대학』 11:22)

마승을 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닭과 돼지를 키우는 사람의

---

20 馬乘, 네 필의 말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얼음을 치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소와 양을 치는 사람의 이익을 빼앗지 않습니다. 백승의 대부는 봉읍지의 세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세리를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염두에 둔 처사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지켜주려는 의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민본정치가 의로움을 실천하는 정치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민본정치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대학』의 이야기도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면서 국부를 늘리는 방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여 왕의 경제력과 국부를 증가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의로움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재앙이 있을 것을 『대학』의 저자는 또한 경고합니다. "국가의 수장이 되어 재물 쓰는 것을 힘쓰는 것은 반드시 소인이 조장합니다. 소인이 잘한다고 여겨서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재앙과 해로움이 동시에 이를 것입니다. 비록 유능한 인물이 있더라도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익을 이로움으로 삼지 않고 의로움을 이로움으로 삼는다 합니다."(『대학』 11:23)

의로움의 정치가 나라에 보탬이 되는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을

소인은 알지 못합니다. 공자는 소인배가 되지 말고 큰사람이 되라고 늘 말했습니다. 소인배는 자신만 생각하고 바로 앞만 볼 뿐이어서 전체를 높은 차원에서 굽어볼 줄 모릅니다. 나라에 재앙과 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이익을 얻는다는 말은 명언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국가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의로움의 기준은 백성입니다. 백성에게 옳고 타당한 것이 의로운 것이고 백성의 삶을 해치고 돌보지 않는 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백성을 기준으로 삼고 백성을 위한 의로운 정치는 도덕적 우월함이라는 가치의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라에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나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의로운 정치를 맹자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치, 백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치는 백성을 살찌우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높입니다. 국부를 증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땅이 사방 백 리로 작을지라도 천하를 통일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어진 정치를 백성에게 베풀어서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가볍게 하면 논밭을 깊이 갈고 김을 잘 맬 것이요, 젊은 사람이 한가한 날에 효제와 충신을 닦으면 들어와서는 부형을

섬기며 나가서는 윗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기를 들고서라도 강한 진나라와 초나라의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장기를 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백성의 농사 때를 빼앗아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면, 부모는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형제와 처자식은 생이별을 할 것입니다. 저들이 그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는데 왕이 공격하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는 대적할 자가 없다고 없습니다."(『맹자』 1:5)

이제는 국가 통치의 측면이 아니라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의로움과 이익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유학의 기본 정신에서 논하는 방식입니다. 즉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또는 세상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했을 때 정신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우선에 두는 태도입니다.

배는 많은 사람과 물건을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배는 기차와 더불어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배의 가장 큰 재난은 무엇이지요? 타이타닉 호 하면 떠오르지요.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근심하다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배를 산위에 옮겼습니다. 배가 침몰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배는 결코 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을 떠나면 배는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배가 아니게 됩니다. 배는 또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배 밑으로 작은 구멍이 생겨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합니다.

유학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학자들은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을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출세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상은 세속주의의 물결이 범람합니다. 유학은 세속의 물결을 떠나지 않지만 세속적 물방울이 그 안으로 한 방울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방울이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 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한 방울이 결국 배를 침몰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 삼엄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맹자가 의로움을 높이고 이익을 억제하는 태도입니다. 의로움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익은 어떤 목적이 행동을 추동합니다.

율곡이 "의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 이를 위하는 도둑의 무리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율곡의 말을 부연하면, 의롭다는 행위는 무엇을 위한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한다면 이는 목적이 개입되어서 결국 이익을 위하는 행위로

전락합니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맹자가 사람은 측은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저절로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구하려고 합니다. 이 자발적 동정심은 결코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향당과 붕우들에게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며, 잔인하다는 오명을 싫어해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맹자』 3:6〈2〉)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구하는 구하려는 마음이나 그 행동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부모를 알고 있어서 더 열성적으로 도와주어야지 하거나 아이를 구해서 그 부모와 친교를 맺으려는 의도, 지역사회와 친구들 사이에서 선한 일을 했다는 명성을 들을 수 있겠다는 기대, 잔인하다는 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염려 등이 조금이라도 자발적 동정심에 개입되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주었더라도 의로운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1781년 57세에 비판 3부작의 첫 저서 『순수이성비판』을 출판합니다. 4년 뒤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을 내놓는데 여기에서 '정언 명령'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동물은 이성이 아닌 자연의 본

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 봅니다. 본능을 자연적 경향성, 혹은 자연적 필연성이라고 명명합니다. 인간이 본능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고 인간의 존엄성도 보장된다고 합니다. 본능은 타율성, 이성은 자율성으로 구분합니다.

본능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자연법칙에서 비롯됩니다. 이성은 우리 의지에서 비롯되기에 자율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성적 행동을 추동하는 이성은 다른 말로 하면 선의지입니다.

우리의 선의지인 이성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정언명령의 형식을 취합니다.

명령은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언명령은 조건부 명령으로 '사업가로 좋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 식입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와 같은 형식입니다.

정언명령은 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상황에 민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명령이 도덕적 명령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상정하면 그 형식은 정언명령 외에는 없습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어떤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앞에서 인용한 율곡이 "의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 이를 위하는 도둑의 무리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둔 행동은 가언명령입니다. 마치 '사업가로 좋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 조건부 명령입니다. 정직하게 하는 행동이 명성을 얻고 싶다는 목적에 의해 종속된 행동입니다. 이는 타율적 행동입니다.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선의지의 명령을 따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목적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행동은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율곡이 말하듯이 "선을 행하면서 명예를 구하는 자 또한 이를 위하는 마음이니 군자는 그것을 담장을 넘고 벽을 뚫는 도둑보다 더 심하게 본다. 하물며 불선(不善)을 행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자이랴."입니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學者莫急於辨義利之分, 義者無所爲而爲之者也.
학 자 막 급 어 변 의 리 지 분 의 자 무 소 위 이 위 지 자 야

秒有所爲, 皆是爲利, 蹠之徒也. 可不戒哉?
초 유 소 위 개 시 위 리 척 지 도 야 가 불 계 재

爲善而求名者, 亦利心也.
위 선 이 구 명 자 역 리 심 야

君者視之, 甚於穿窬, 況爲不善而征利者乎.
군 자 시 지 심 어 천 유 황 위 불 선 이 정 리 자 호

學者不可以一毫利心, 存諸胸中.
학 자 불 가 이 일 호 리 심 존 제 흉 중

배우는 자는 무엇보다도 의로움과 이익을 밝게 분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의로움이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 이익을 위하는 도둑의 무리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선을 행하면서 명예를 구하는 자 또한 이익을 위하는 마음이니 군자는 그것을 담장을 넘고 벽을 뚫는 도둑보다 더 심하게 본다. 하물며 불선을 행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자이랴.

莫急於: ~보다 급한 것이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辨義利之分: 의로움과 이익이 나뉘는 것을 분별하다/無所爲: 위해서 하는 바가 없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바가 없다/爲之者也: ~을 하는 것이다/稍有所爲: 조금이라도 의도하는 바가 있다/皆是: 모두 ~이다/爲利: 이익을 위하다, 이익을 추구하다/蹠: 도척, 유명한 도둑으로 도둑의 대명사로 쓰임/徒: 무리/可不戒哉: 경

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爲善: 선을 행하다/求名者: 명예를 구하는 것/利心: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다/君子視之: 군자가 그것을 보기를/甚於: ~보다 심하다/穿窬: 담을 뚫고 넘다, 도둑질하다/況: ~하물며/爲不善: 불선을 행하다/征利:이익을 구하다/

古人爲親服勞, 雖行傭負米, 亦所不辭,
고 인 위 친 복 로 수 행 용 부 미 역 소 불 사

而其心介潔, 不爲利汚. 今之爲士者, 終日讀聖賢書,
이 기 심 개 결 불 위 리 오 금 지 위 사 자 종 일 독 성 현 서

而尙不免有利心, 皆不可哀也哉. 雖或家貧營養,
이 상 불 면 유 리 심 개 불 가 애 야 재 수 혹 가 빈 영 양

不免有所經畵, 但不可萌求利之念耳.
불 면 유 소 경 화 단 불 가 맹 구 리 지 념 이

옛사람은 부모를 위한 노역이라면 품팔이나 쌀을 짊어지기도 하였지만 그 마음은 항상 깨끗하여 이욕에 물드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날의 선비는 온종일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이욕을 버리지 못하니 슬프지 않겠는가.

爲親: 부모를 위하여/服勞: 노역을 하다/雖: 비록 ~일지라도/行傭: 품팔이를 하다/負米: 쌀가마니를 지다/所不辭: 사양하는 바가 없다, 하지 않는 바가 없다/介潔: 단정하고 깨끗하다/不爲利汚: 이욕으로 오염되지 않는다/終日: 종일토록/讀聖賢書: 성현이 지은 책을 읽다/尙: 여전히/不免: 면하지 못하다/有利心: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豈: 어찌/不可哀也哉: 슬프지 않겠는가?